

시그니처 있는 아침



토르소
-이장욱(1968~)

손가락은 외로움을 위해 팔고
귀는 죄책감을 위해 팔았다
코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팔았으며
흰 치아는 한 번에 한 개씩
오해를 위해 팔았다.

나는 습관이 없고
냉혈한의 표정이 없고
웃겨 보이게 걸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입을 수 있다.

악수를 하거나
이어달리기는?
(...)
깜깜하게 뚫린 당신의 눈동자에 내 얼굴
이 비치는 순간,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만남 적이 있다.
(...)

각기 다른 목적으로 몸의 기관을 팔아 치운 토르소(동체만 있는 조각상)는 상품 지배의 현실에서 해체 혹은 분열된 주제(split subject)를 상징한다. 그것은 통합된 주제(unified subject)가 아니므로 일관된 포커스(습관)도 없고, 표정도 없다. 말하자면 일종의 비(非)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사람도 없는데, 그것의 눈에서 화자는 자신을 본다. 시는 바깥과 안에 대한 동시적 성찰이다.

(오민석·시인·단국대 영문학과 교수)

알파고 신드롬 낭비하지 말자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Global Insights

알파고와 인공지능(AI)은 아직도 모든 언론 매체와 모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세돌의 패배보다 AI의 승리가 몰고 온 충격으로 우리 사회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공포 그리고 기대와 희망이 엇갈리는 '알파고 신드롬'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의 관심을 일단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돌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것은 꼭 다행한 일이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비롯한 정보지식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관련 기업인들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에 비해 진전 속도가 훨씬 빨라 앞으로 5년 이내에 기존의 생활방식과 생산·소비 행태, 산업과 일자리 수와 구조, 정부와 기업 등 모든 조직의 경영·관리·운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해 세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미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AI가 해내고 있다. AI의 발전 속도를 생각할 때 아마 이세돌은 알파고를 이겨본 유일한 기사 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AI를 구비한 기구나 로봇이 각 가정에 몇 대씩이나 있는지 따질 때가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물론이며 타 분야의 전문지식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여기서 재론할 여지도 없다. 그리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및 재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시급하다.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때 기존 택시기사들을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나.

앞으로 20년 이내에 미국 근로자의 거의



일러스트=박용석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는 경구대로 알파고 신드롬을 교육·노동 개혁 등 국정 수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절반이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도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요성을 웅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교육 부문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틀 안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간섭을 대폭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어떻게 AI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정부하에서 대학 컴퓨터학과 학생 수를 정원 규제의 경직된 틀 안에서 제한해 오히려 졸업생 수를 줄여나갈 수 있나.

또한 다보스 전문가들은 남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남과 협력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감성적 지능' 혹은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이 모든 직종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아직도 대학 전공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학으로 경직되게 분리·운영하며, 어릴 적부터 기계적

이고 비창의적인 과외공부에 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교육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창업과 기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해 경제 체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학교 교육은 물론 중요하다.

알파고 충격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새로운 기업 지원 제도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말의 참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또 다른 간섭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지원책보다 현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애부터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주재할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도 해당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런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스푸트니크 위기'를 맞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는 경구대로 알파고 신드롬을 평소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개혁과 노동시장개혁 그리고 기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국정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가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본사고문

로컬푸드직매장 신규설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인 로컬푸드직매장 확충을 위하여 2016~2017년에 직매장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를 선발,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1. 신청자격

-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6~2017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적 필요)

- ◆ 기본요건
 - (공통)출자자 50명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직매장 설치요건

-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
-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여 판매
-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3. 선정규모

- 2016년 매장 설치 사업자 : 6개소 이내
- 2017년 매장 설치 사업자 : 50개소 내외

4. 지원내용

- (2016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기자재구입비 및 개장홍보비
 - 시설 : 보조 30%, 3억원 한도 / 홍보 : 보조 100%, 2백만원 한도
- (2017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가의 사업계획 컨설팅비,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6백만원 한도
 - * 2017년 사업자는 2단계 지원시스템에 따라 시설자금 및 홍보비는 2017년에 배정 예정으로 지원조건 등은 2017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적용
 -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6년에 시설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2016년 직매장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자금과 홍보비를 선배정 집행할 수 있음

5.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5년 재무제표(신설법인 제외), 조합원 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농업회사법인에 한함), 계량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각 2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3. 31(목)까지
- 제출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역	접수처	연락처	지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620-236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09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2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5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7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21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13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6.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조직 개별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면접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없으며 평가자의 질의응답으로만 진행함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7. 기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주체(법인격)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위탁운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면접평가일까지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지원금 전액 회수
-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